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 경 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국내 음악치료 관련연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심의에 대한 조사연구

202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강 태 욱

국내 음악치료 관련연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심의에 대한 조사연구

강 경 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강 태 욱

# 인준서

강태욱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11월

심사위원장      박 정 미



심사위원      강 경 선



심사위원      배 미 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 개요

본 연구는 국내 음악치료 관련 연구에서의 IRB 심의 현황을 파악하여 음악치료 연구윤리의 현재를 이해하고, 향후 IRB 심의 적용을 고려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 음악치료 전공 대학원의 인간대상연구 학위논문 IRB 심의 필수여부를 조사하였고,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라 사회행동과학연구의 IRB 심의가 의무화된 2013년 2월을 기점으로 2022년 12월까지 KCI에 등재(후보)된 학술지에 게재된 음악치료 관련 논문 중 IRB 심의를 거친 131편의 논문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음악치료 전공 대학원 중 학위논문의 IRB 심의가 필수인 곳의 비율은 석사학위 44%, 박사학위 100%였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KCI 등재 전체 학술지의 음악치료 IRB 심의비율은 26.1%였으며,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인 「한국음악치료학회지」와 「인간행동과 음악연구」의 IRB 심의 비율은 20.6%로 전체 비율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학술지 주제 분류별로는 사회과학 28.2%, 예술·체육학과 의약학 각 27.5%, 복합학 13%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논문 주 저자의 전공영역은 음악치료 61.8%, 의료간호 33.6% 순이었다. IRB 심의기관은 대학이 61.8%로 가장 많았다. 연구유형으로는 실험연구가 61.8%, 중재유형은 감상이 22.9%로 가장 많았다.

결과를 토대로 아직 국내 음악치료학계 전반에 IRB 심의 필요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전체 국내 학계의 연구윤리에 관한 생태학적 변화가 음악치료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음악치료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음악치료 연구의 안정성과 연구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임상적 전문성 및 이론의 발전을 위하여 IRB 적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연구 대상이 취약할수록 연구자는 대상자 보호에 더욱

민감해야 하고 IRB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음악치료 학계에서 음악치료 전공생, 교육자, 현업치료사 등의 관련자 모두에게 연구윤리와 IRB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음악치료 학술지 게재 및 음악치료 대학원에서 논문 발표 시 IRB 심의를 의무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 목 차

논문개요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5
<b>II. 연구방법</b> .....	6
1. 연구대상 및 절차 .....	6
1) 국내 음악치료 전공 대학원 .....	6
2) KCI 등재지에 발표된 전체 음악치료 관련 논문 .....	6
2. 분석방법 .....	7
<b>III. 이론적 배경</b> .....	9
1. 인간 대상 연구 .....	9
2. 연구와 관련된 윤리 .....	10
1) 연구윤리 .....	10
2) 생명윤리 .....	11
3) 임상연구 윤리 .....	12
4) 사회행동과학연구 윤리 .....	14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	15
1) 개요 .....	15
2) 관련 법규 .....	17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약칭: 생명윤리법) .....	17
(2) 개인정보보호법 .....	20
4. 음악치료 연구윤리 .....	20
1) 음악치료 연구 .....	20
2) 음악치료 윤리 .....	21
3) 음악치료 연구윤리 .....	24
<b>IV. 결과 .....</b>	<b>26</b>
1. 국내 음악치료 전공 대학원에서 인간대상연구 학위논문의 IRB 심의 필수 여부 ..	26
2. KCI 등재지에 발표된 전체 음악치료 IRB 심의 현황 및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한국음악치료학회지」와 .....	28
「인간행동과 음악연구」의 IRB 심의 현황	
3. KCI 등재지에 발표된 IRB 심의를 거친 국내 음악치료 .....	29
관련 연구의 영역별 현황	
1) 연도별 현황 .....	29

2) 학술지 주제 분류 및 KCI 재단등재 구분별 논문 현황	30
3) IRB 심의기관별 논문 현황	31
4) 주 저자 학위 및 전공별 논문 현황	32
5) 연구유형 및 연구방법별 논문 현황	33
6) 연구대상 및 중재유형별 논문 현황	33
<b>V. 결론 및 논의</b>	<b>35</b>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영문초록)

## 표 목 차

표 1. 분류기준 .....	8
표 2.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구분 .....	12
표 3. 음악치료 전공 대학원 인간대상연구 학위논문 IRB 심의 필수 여부 .....	26
표 4. 학술지별 IRB 심의 현황 .....	29
표 5. 학술지 주제 및 KCI 재단등재 구분별 논문 현황 .....	31
표 6. IRB 심의기관별 논문 현황 .....	31
표 7. 주 저자 학위 및 전공별 논문 현황 .....	32
표 8. 연구유형 및 연구방법별 논문 현황 .....	33
표 9. 연구대상 및 중재유형별 논문 현황 .....	34

## 그림 목 차

그림 1. KCI 등재지 IRB 인증 음악치료 논문 연도별 현황 .....	30
---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46년에 시행된 뉴렘버그 의사 재판(The Nuremberg Doctors Trial)과 1932년부터 1972년까지 시행된 터스키기 매독연구(Tuskegee Syphilis Study)는 연구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이후 2005년의 ‘황우석 사태’는 국내 학계에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의 진실성, 그리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체유래물 연구의 생명윤리에 대한 엄격성과 안전성의 중요함에 대하여 학계의 공감대를 이끌어 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연구윤리가 강조되면서 (Park, 2019) 자연과학에 한정되었던 생명윤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로 확장된다. 2012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윤리 허가가 필요한 시대가 시작되었다(Cho, 2018).

연구윤리를 평가하는 기관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라 불리는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는 사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를 받아야 하며, 연구대상자에 미칠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평가하여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연구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Bioethics and Safety Act, 2019).

음악치료 연구 역시 대부분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에 IRB 심의의 대상이 된다. 치료사와 내담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음악치료 실험연구는 말할

것도 없으며 음악치료 조사연구 역시 조사 참여자가 인간이기에 IRB 심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음악치료 연구 관련 IRB에 대한 인식은 음악치료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음악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한 치료적 도구라는 만연한 인식과 음악치료 윤리와 연구윤리가 혼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음악치료협회(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AMTA, 2019)는 (1) 모두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2) 연민을 가지고 행동하고, (3) 책임감을 가지고, (4) 온전함과 진실성을 보이고, (5) 탁월함을 위해 노력하는 것 등 다섯 가지 윤리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IRB의 기준인 「생명윤리법」 제3조에서는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불침해 및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복지의 우선적 고려, (2) 연구대상자의 자율성 존중과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 획득, (3) 연구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와 사생활 침해가 가능한 개인정보의 비밀 보호, (4) 연구대상자의 안전의 충분한 고려와 위험 최소화, (5)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특별한 보호, (6) 생명윤리와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의 모색과 국제기준의 수용 등 여섯 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Bioethics and Safety Act, 2019). 비교하자면 음악치료에서의 윤리는 치료대상자의 안녕과 치료사의 태도와 노력에 대한 내용을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반면, IRB에서의 윤리는 연구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IRB는 음악치료 대상자가 특수아동, 정신질환자, 치매노인과 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대상일 경우 이들의 연구참여에 대한 자율성, 사생활과 개인정보 비밀 보호, 음악치료 실험 중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안전성 대책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공지를 필요로 한다.

음악치료사의 윤리와 음악치료 연구윤리는 내담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라는 기본 틀은 공유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다르다. 음악치료 윤

리는 음악치료사의 행동과 태도에 관련된 도덕적 요구사항이다. 반면 음악 치료 연구윤리는 연구자가 사전 연구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연구대상자 수, 연구방법, 연구분석, 연구기간, 연구자 대상자에 대한 보상, 실험 중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연구대상자 모집문건, 연구 참여동의서, 연구 설명서 등의 그 내용과 방법이 적절한지가 중요하다. 기관(IRB)에서는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연구의 진실성, 엄격성,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음악치료는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며, 악기연주, 노래하기, 움직임과 같은 능동적인 활동과 언어적 진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에 예측하지 못한 물리적·심리적 위험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보행이 불편한 뇌졸중 또는 파킨슨 환자를 대상으로 리듬청각자극(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RAS)훈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실험 중 환자의 '넘어짐'은 분명한 위험요인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비하여 어떻게 안전하게 대비하고 만약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방안을 IRB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그 방안이 안전하고 윤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경우 연구자는 IRB 인증번호를 부여받는다.

기관의 심사를 거쳐 IRB 인증번호를 부여받는다라는 것은 연구의 안정성과 엄격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연구자는 기관의 허가 없이 연구계획서와 다르게 연구할 수 없으며 연구대상자를 보호해야 하며 연구 자료는 연구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등의 규율을 따라야 한다. IRB의 연구에 대한 안정성과 엄격성으로 이미 많은 학회와 기관에서는 연구 실행 전 IRB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의학계에서는 IRB 심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의학, 치의학, 수의학, 간호학, 영양학 분야의 280종의 의학학술지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 규정을 협의하는 국내 최대의 의학학술지 단체

인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KAMJE)는 의학학술지 평가항목에서 기관윤리위원회 허락 및 고지를 요구하고 있고, 투고된 논문에서 해당 사항을 기술하는지를 확인한다(KAMJE, 2022). 심리학계 및 상담학계에서는 IRB 심의를 권고하고 있다(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2016;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8)(검색일: 2023.04.10). 교육학계에서는 IRB 심의에 대해 아직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n.d.; The Korean Society for Educational Technology, 2020; Korean Society for Young Children Becoming Curriculum, 2010;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2016)(검색일: 2023.04.10).

한편, 국내 음악치료학계에는 IRB와 관련된 합의점이 없는 상황이다.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인간행동과 음악연구」에서는 인간 대상 연구에서 IRB 심의 승인에 대한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Korean Music Therapy Education Association, 2021)(검색일: 2023.04.10), 또 다른 「한국음악치료학회지」에서는 윤리규정에서 IRB와 관련된 사항은 아직 없다(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2020)(검색일: 2023.04.10). 음악치료 대학원에서는 연구에서 IRB 심의 관련 내용은 학교에 따라 또는 학위과정에 따라 다르다.

IRB 심의는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연구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윤리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향상시킨다(Cha, 2012). 한국연구재단은 2017년부터 학술지 평가 기준에 IRB 관련 점수를 연구윤리와 함께 포함시킴으로써 IRB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인간대상 연구에서의 IRB 심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Cho, 2018). 이러

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음악치료 연구의 IRB 심의 적용은 연구의 안전성 확보와 질 향상 및 선진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음악치료 관련 연구에서의 IRB 심의 현황을 파악하여 음악치료 연구윤리의 현재를 이해하고 향후 음악치료 학계 및 연구자들이 IRB 심의 적용을 고려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1. 국내 음악치료 전공 대학원에서 학위논문의 IRB 심의 필수 현황은 어떠한가?
2. KCI 등재지에 발표된 전체 음악치료 관련 인간대상연구 IRB 심의 현황 및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한국음악치료학회지」와 「인간행동과 음악연구」의 IRB 심의 현황은 어떠한가?
3. KCI 등재지에 발표된 IRB 심의를 거친 국내 음악치료 관련 연구의 영역별 현황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 1) 국내 음악치료 전공 대학원

국내 음악치료 전공 대학원에서 인간대상연구 학위논문의 IRB 심의 필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국음악치료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Music Therapists)와 한국음악치료학회(Korean Music Therapy Association)를 통해 각 대학원의 학과 이메일 서면질의와 학과사무실 또는 학과주임교수 전화와 문자 질의를 통해 인간대상연구 학위논문의 IRB 심의 필수 여부를 확인했다.

#### 2) KCI 등재지에 발표된 전체 음악치료 관련 논문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n Citation Index: KCI)에서 사회행동과학연구의 IRB 심의가 의무화된 2013년 2월을 기점으로 2022년 12월까지 우수등재·등재·등재후보지로 선정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음악치료’, ‘음악요법’, ‘음악중재’, ‘음악힐링’, ‘음악치유’, ‘music therapy’, ‘music intervention’, ‘music healing’ 을 키워드로 검색된 1,136편의 논문을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논문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음악치료와 관련되지 않은 논문, 중복되는 논문 467편을 제외하였다. KCI에서 원문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 PubMed, DBPIA, RISS, Google Scholar, e-article, 스콜라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논문을 재검색하거나 해당 학회의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하였다. 총 669편의 남은 음악치료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원문에서 인간대상연구인지 확인하고, ‘IRB’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준하는 기관의 심의를 거쳤는지 확인하였다. 확인된 논문

131편을 최종 선정하였다.

## 2. 분석방법

선정된 논문은 원문을 확인하여 분류기준(표 1 참조)에 따라 범주화하여 Excel 2016 프로그램에 코딩하였다. 분류기준은 연구 현황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Cho, 2013; Hwang & Park, 2012; Kim & Kang, 2021)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전공교수 1인과 점검하였다. 분류기준은 연도별, KCI 재단 등재 구분별, 학술지 주제 분류별, IRB 심의 기관별, 주 저자 학위별, 주 저자 전공별, 연구유형별, 연구방법별, 연구대상별, 중재유형별로 하였다. 학술지 주제의 분류는 KCI에서 분류한 기준으로 하였다. 주 저자는 논문의 주 저자가 1인 이상일 경우 대표 주 저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논문 발표 시의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IRB 심의기관과 주 저자 특성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미상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유형에서 실험연구는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실험설계요건을 포함한 연구를 말하고, 기술연구는 현상을 설명하고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방법으로 조사, 사례, 분석 연구들이 이에 속하며, 개발연구는 특정 대상군의 특성에 맞게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변인에 따라 측정도구를 개발한 연구이다(Kim, 2018). 연구대상에서 의료처치는 입원환자, 수술환자, 종말기환자, 암환자, 만성통증환자, 척추손상환자, 치과환자를 포함하고, 전문인은 해당 분야의 전공생, 현업업무 종사자를 포함한다. 중재 유형에서 음악중재가 포함되지 않은 논문을 non으로 분류하였다. 객관성을 위해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공교수 1인과 논의하여 범주화하였다. 코딩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분류기준

기준	범주
발표 연도	2013-2022
학술지 주제	사회과학, 예술·체육학, 의약학, 복합학, 공학, 자연과학, 인문학
KCI 등재구분	우수등재, 등재, 등재 후보
IRB 인증 기관	대학, 병원, 공용, 미상
주 저자 학위	학사, 석사, 박사과정, 박사수료, 박사, 교수, 의사, 미상
주 저자 전공	음악치료, 의약학, 예술치료, 음악학, 사회과학, 응용예술
연구유형	실험, 기술, 개발
연구방법	양적, 질적, 병행
연구대상	장애인(아동, 성인, 노인, 혼합), 비장애인(아동, 성인, 노인), 보호자, 의료처치환자, 음악치료 전문인, 예술치료 전문인, 의료 전문인, 혼합
중재유형	노래, 악기연주, 감상, 신경학적, 온라인, 혼합, 중재없음

### Ⅲ. 이론적 배경

#### 1. 인간 대상 연구

“인간 대상 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연구의 유형별로는 ‘중재연구(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어떤 침습적 행위를 하거나 대상자의 환경을 조작, 물리적 개입이 포함된 연구)’, ‘상호작용을 통한 연구(연구대상자를 선정하고 연구대상자의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나 행동 관찰 등으로 자료를 얻어 그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한 연구(연구대상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연구대상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집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 그리고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실험적 연구와 조사 등을 통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가 복합적으로 수행되거나, 관찰연구가 포함된 연구 등 전술한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 등이 있다(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n.d.).

음악치료에서는 소수의 문헌·역사·철학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가 인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KCI에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음악치료 논문 472편 중 96.8%인 457편이 인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김하영, 2018), 「한국음악치료학회지」의 1999년 창간호부터 2016년 제18권 1호까지 총 158편의 논문들 중 92.1%인 139편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김경숙, 이상은, 2016). 인간 대상 연구와 관련된 윤리의 이해와 IRB를 포함한 관련 법령의 이해와 준수는 음악치료 연구 수행에서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연구와 관련된 윤리에 대해 고찰하고, IRB와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본 후, 음악치료 연구윤리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 2. 연구와 관련된 윤리

### 1) 연구윤리

연구윤리(research ethics)란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바람직한 규범”으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진실성 유지와 생명윤리, 연구분야의 윤리규범 준수 등”의 내용을 주요하게 포함한다(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8).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연구자가 정직하고 정확하며, 성실한 태도로 바람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또는 행동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인재, 2010). 연구자는 연구윤리 규범을 준수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연구의 핵심 가치들인 정직성(정직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연구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정확성(연구 결과를 정확히 보고하고, 데이터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 효율성(현명하고 낭비 없이 연구자원을 이용하는 것), 객관성(명확하게 사실만을 설명하고, 부당한 편견(bias)을 피하는 것) 등을 잘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진실성(research integrity)을 확보해야한다(Steneck, 2007).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범은 크게 사회윤리규범과 내부윤리규범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사회적 기준에 따라 법률 등의 형태로 연구의 주제와 대상을 규제하는 것(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이라면, 후자는 연구공동체 내부의 필요성 또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자체적으로 규정한 윤리 기준이다(임영모, 고유상, 2006).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 생명윤리, 표절, 변조, 위조와 같은 연구윤리 이슈들이 등장했다. 이후 정부 및 학계의 연구윤리에 대한 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권오훈 등, 2019).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08년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개정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체계 정비를 추진하였다(이현복, 이찬미, 2010). 또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은 2013년 개정을 통해 IRB 심의 대상을 모든 인간 대상 연구로 확대하였다(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n.d.). 최근에는 많은 정치인들과 연구자들의 논문포털 문제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러한 연구윤리 이슈는 학문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김항인, 2015).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식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반드시 연구윤리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현복, 이찬미, 2010).

## 2) 생명윤리

생명윤리를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생각해보면, 협의적 측면에서는 생명과학, 의학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치료에 대한 윤리적 문제로서 일종의 전문직 윤리와 새로운 과학의 발달로 생겨난 여러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적 측면에서는 인간과 생명에 대한 공동체의 바람직한 접근방향에 대한 고민으로서 ‘생명’에 대한 외경으로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숙고해온 보편적 윤리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김현철, 2010). 본 연구에서는 전자인 생명윤리의 협의적 측면을 중점으로 보고 있다. 생명윤리(bioethics)라는 말은 미국의 포터(Van Rensselaer Potter, 1911-2001)가 처음 사용하였다(주호노, 2017). 그는 1970년 「생명윤리, 생존의 과학(Bioethics, the Science of Survival)」에서 생명윤리를 생물학 지식과 인간의 가치 체계에 대한 지식을 함께 엮는 새로운 학문으로 정의하였고, 생명윤리를 통해 과학기술 발달의 방향을 제시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

상시켜야한다고 지적하였다(Potter, 1970). 생명윤리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법적 규제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학제적 성격을 지니며 생명과학적 성과에 대한 인간의 가치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주호노, 2017).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생명윤리는 연구윤리의 범주 안에 포함되기는 하나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그 위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목적이 있어서 연구내용이나 결과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을 둔 연구윤리와는 구분된다(조귀훈, 2013)(표 2 참조).

표 2.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구분

구분	생명윤리	연구윤리
목적	연구대상자 보호	연구부정행위 방지
규율 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주요 내용	연구대상자 안전 보호 연구대상자 개인정보보호 자기결정권(동의, 검체 폐기 등) 확보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방지
책임소재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장 책임	원칙적으로 연구자 개인 책임
규제방식	법적 규제	자율 규제(연구자 양심)
기관 내 자율관리기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진실성위원회

주. 출처: 조성연. (2018). 사회행동과학연구에서의 생명윤리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이해.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2), 1-17.

### 3) 임상연구 윤리

임상연구(clinical study)란 “생명의학분야 관련 기술개발, 검사 또는 평가를 포함하여 임상지식의 폭을 넓히고 일반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시행하

는 각종 연구 및 체계적인 조사” (Everitt, Wessely, 2008)를 의미한다. 임상연구를 통한 생명과학의 비약적 발달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였던 무병장수의 꿈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게 하지만, 동시에 규범적으로 도덕적·윤리적·법률적 문제를 수반하여 왔다(주호노, 2017). 이를테면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인공피임기술, 낙태기술, 보조생식술, 생명의 마지막과 관련된 무익한 연명치료 중단, 의사조력자살, 안락사, 인간 대상 연구, 유전자 검사와 연구 및 치료, 줄기세포 연구 등 첨단 의료기술의 적용, 희소한 의료 자원의 공정한 분배의 문제 등은 여러 가지 윤리적 판단의 어려움을 수반한다(김수정, 2013).

임상연구에서의 윤리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대표적 윤리논란으로는 20세기 최악의 비윤리적 의학실험 가운데 하나로 기억되는 터스키기 매독 실험(Tuskegee syphilis experiment)(1932-1972)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의학 실험의 윤리성과 합법성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게 되었다(박진빈, 2017). 이후 1978년 세계 최초의 시험관아기(in vitro fertilization, IVF)인 루이스 브라운(Louise Brown)의 탄생은 종교적 차원을 넘어 과학계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1996년 영국 로스린연구소(Roslin Institute)의 체세포핵이식 방법에 의한 포유동물 복제인 새끼 양 돌리(Dolly)의 탄생과 2005년 황우석 교수의 불법 난자 매매와 여성 연구원으로부터의 강제 난자 채취 및 주요 연구결과 날조 사건 등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조성연, 2018).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임상연구 윤리의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그에 대한 움직임으로, 1974년 미국의회에서 “생명의학 및 행동과학 연구 피실험자들의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Research Subjects of Biomedical and Behavioral Research)를 구성, 1979년 인간 실험대상에 대한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들을 규

정한 「벨몬트 보고서」(Belmont Report)가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임상연구 윤리가 발전하기 시작한다(강준호, 2006). 각국의 임상연구 윤리제도의 시작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미연방 정부에서 1985년 ‘보건연구부속법’을 제정하여 연구 부정행위 사례를 다루는 절차와 정부의 역할을 명문화하였고, 영국에서는 1997년 의학연구재단(MRC : Medical Research Council)이 ‘과학 부정행위 고발 조사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제정하였고, 독일에서는 1997년 막스플랑크 연구회(MPG : Max Planck Gesellschaft)가 1997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 지침을 제정하였고, 일본에서는 일본학술회의가 2005년 5월 “과학에서의 연구부정행위와 그 방지책 “이라는 지침서를 배포하면서 시작하였다(이현복, 이찬미, 2010). 국내에서는 2005년부터 발효된 「생명윤리법」에서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인체유래물은행, 유전자연구기관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설치하도록 명시하면서 비로소 임상연구윤리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시작되었다(조성연, 2018).

#### 4) 사회행동과학연구 윤리

사회행동과학연구(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SBR)란 “사회 또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과학적 연구”(김승현, 윤홍근, 정이환, 2011)를 말한다. 사회행동과학연구는 설문조사, 면접, 초점면접(focus group interview), 참여·비참여 관찰연구, 실험, 비침습적인 물리적 혹은 생리적 측정방법 등 인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연구하며 심리학, 상담학, 사회학, 교육학, 아동학, 인류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보건학, 체육학, 식품영양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포괄적으로 사용된다(조성연, 2018). 음악치료 연구는 대체로 사회행동과학연구의 형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행동과학연구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침습행위는 없지

만 연구대상자에게 심리적·정신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고, 연구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연구자의 기망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연구대상자의 정보 노출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야기할 윤리적 우려들이 있다(박수현, 2019).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사회행동과학연구에서 윤리는 주로 위조, 변조, 표절과 같은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연구자의 정직함에 의존하는 형태였고, 연구대상이 지니고 있는 권리나 가치 등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이 없었다(조대훈, 2014; 차재권, 2009). 2012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연구자라면 누구나 연구 시작 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제도화되었다(조성연, 2018).

한편, 연구자들은 사회행동과학연구의 IRB 적용에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Israel, 2015). 사회행동과학연구는 대학 등 비침습적 연구기관에서 주로 수행되지만 침습적 임상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병원에서 적용되는 IRB를 기준으로 IRB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대학 IRB 심의절차가 병원 IRB 수준만큼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Sieber, Tolich, 2013).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행동과학연구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지만 국내의 연구 성과물들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김시형 등, 2016). 사회행동과학연구 IRB 적용과 윤리적 쟁점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 1) 개요

IRB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RB란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를 말한다(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n.d.).

IRB는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그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및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등을 수행해야 한다. 생명윤리법은 각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 및 활동에 대한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IRB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IRB의 시작은 약 50년 전이다. 앞서 언급한 터스키기 비치료 매독 관찰 실험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1974년 「국가연구법」(National Research Act)이 제정되어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에 대해 IRB 설치가 의무화되었다(박수현, 2019). 우리나라는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보건사회부 고시 제1987-87호, 1987.12.28 제정)」에 따른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2005년부터 발효된 「생명윤리법」에서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체세포복제 배아연구기관, 인체유래물은행, 유전자연구기관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였다(조성연, 2018). 2012년 개정하여 공포한 「생명윤리법」에서 사회행동과학연구를 포함한 인간 대상 연구로 설치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고, 2013년부터 발

효된 「생명윤리법」에서는 기관의 명칭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 변경되었다(손순영, 홍승호, 김용우, 2013). 국내에는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전국 의료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에 952개소에서 IRB가 운영 중이다(보건복지부, 2023).

## 2) 관련 법규

우리 헌법 제 2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구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연구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박수현, 2019). 이에 따라 인간 대상 연구는 「생명윤리법」에 의한 IRB를 통한 통제가 가능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규제가 행해진다.

###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약칭: 생명윤리법)

「생명윤리법」은 총 9장 7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 법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등과 같은 총론적 내용과 인간 대상 연구, 배아 등의 생성과 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유전자치료 및 검사 등과 같은 각론적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과 행정벌(과태료, 벌금, 징역)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이 법의 목적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하는 것이다.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본원칙은 연구 수행 도중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용 설명문 동의서를 작성할 때, IRB가 그 연구계획서 및 설명문 동의서를

심의를 하는 연구의 시작부터 연구결과의 공표 시까지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박수현, 2019).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불침해 및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복지의 우선적 고려 원칙이다. 이는 연구대상자는 연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연구자와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연구를 통한 유의미한 데이터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연구에 있어서의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복지가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자율성 존중과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 획득 원칙이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연구참여 여부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과 연구의 모든 정보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제공되어 강요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는 연구대상자의 이해에 기초한 자발적인 연구참여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법적으로 유효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연구대상자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되거나 없는 연구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와 사생활 침해가능한 개인정보의 비밀 보호 원칙이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연구참여로 인해 연구대상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비밀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비록 연구계획서와 동의서에서 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잘 보호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결과의 공표로 인해라도 연구대상자의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의 비밀 노출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포함된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안전의 충분한 고려와 위험 최소화 원칙이다. 이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안전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과 연구참여에 따른 이득과 위험을 평가하여 이득이 많을 때 연구참여가 허용되고 설혹 연구참여에 따른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그 위

험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특별한 보호 원칙이다. 이는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연구대상자로서 연구에 참여할 경우에는 그 취약성으로 인해 정상인보다 더 큰 위험이 야기될 수 있고 부당한 부담과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인에 비해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여섯째, 생명윤리와 안전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의 모색과 국제기준의 수용 원칙이다. 이는 인간대상연구에 있어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는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다기관연구 등을 통해 국경을 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국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과 설령 국경 내에서 연구가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생명윤리 침해 연구사례들에 대한 반성으로 마련된 보편적 생명윤리 관련 국제기준들에 일치하여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박수현, 2019, pp.18-24에서 수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IRB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용, 공용 IRB 지정 및 공동운영, 지원, 평가 및 인증에 관련된 규정으로 구성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인간대상연구의 사전 심의원칙, 심의면제 사유, 서면 동의원칙, 서명동의의 면제사유, 안전대책, 개인정보 제공, 기록유지와 정보 공개와 같은 내용으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IRB와 연구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제7장부터 제9장까지는 감독, 보칙,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제70조에 따르면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교육·연구기관 또는 병원 등에 IRB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 (2)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총 10장 7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의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 개인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두고 있다(박수현, 2019). 이 법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하는 것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고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제15조). 개인정보의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다(제17조). 개인정보의 수집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제16조).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다(제18조).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목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제18조 2항).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처리가능하다(제23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박수현, 2019, pp.89에서 수정).

## 4. 음악치료 연구윤리

### 1) 음악치료 연구

음악치료는 임상적 결정을 위하여 신뢰 있는 근거를 참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근거중심의 임상(evidence-based practice)이라 할 수 있다(조현아, 2013). 이러한 근거는 내담자에 대한 정보, 치료사의 경험 등을

통해 파악하거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다(Else & Wheeler, 2010). 음악 치료 연구는 임상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을 묘사하거나, 중재과정과 결과를 탐구하고, 음악치료의 역사적 발전과 사건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Debra & Anthony, 2016).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임상 또는 연구를 시행하는 과정을 통해 음악치료사의 임상전문성은 강화된다(조현아, 2013). 이러한 임상의 발전은 다시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증명될 수 있기에 음악치료의 연구와 임상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황은영, 박소연, 2012). 덕슨(Duerksen, 1968)은 “음악치료에 관한 지식과 임상의 발전은 음악치료를 하는 이들이 시행하는 연구와 그들이 사용하는 연구 결과의 질에 좌우된다.” 라고 선언했다. 음악치료는 다른 학문에 비해 역사가 길지 않은 편이라 학문적 정체성을 다져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데에 있어 음악치료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정현주, 2015). 현재까지 음악치료 연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의 음악치료 문헌은 해마다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Google학술검색, 2023.04.30.), 국내에는 음악치료 전문학술지 뿐만 아니라 의약학,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공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학술지에서도 음악치료 논문 게재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연구유형별, 연구대상 특성별로도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김하영, 2018).

## 2) 음악치료 윤리

음악치료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치료 세션에서는 다양한 윤리적 갈등 상황이 발생한다(정현주, 2015). 이를테면 내담자의 정보의 공유와 관련된 비밀 보장 문제, 사전동의에 대한 문제, 치료사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문제, 이중관계의 문제, 경계형성의 문제 등이다(정현주, 2015; Debbie, 2016).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음악치료사는 윤리적 방식으로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Aigen, 1991; Dil eo, 2000). 때때로 치료사는 동일하게 타당한 윤리적 원칙들이 명확한 해법이 없이 상충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Greenfield & Jenson, 2010).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치료사가 선택하는 해결방안은 다른 치료사의 해결방안과 전혀 다를 수도 있고, 내담자에게 최선인 방법이 법규와 상충될 수도 있는데, 이러할 경우 치료사의 윤리적 의사결정은 복잡해진다(Debbie, 2016).

치료사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최선을 선택하기 위해 길잡이가 되는 윤리적 원칙들이 있다. AMTA는 (1) 모두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2) 연민을 가지고 행동하고, (3) 책임감을 가지고, (4) 온전함과 진실성을 보이고, (5) 탁월함을 위해 노력하는 것 등 다섯 가지 윤리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AMTA, 2019)(검색일: 2023.04.10). World Federation of Music Therapy(WFMT)는 (1) 클라이언트/소비자/사용자/대상자(이하 클라이언트)와 음악치료사가 공유하는 개인정보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혹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경우(unless there is concern that the client will harm themself or others) 비밀 유지해야하며, (2) 치료사는 클라이언트, 법정대리인, 학생, 동료연구원, 동료치료사, 고용기관, 규제기관, 인증위원회, 대학 정부 등에게 책임(Accountability)이 있으며, (3) 모든 관계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며 윤리적 상황에서 정직하고 후속조치를 하는 진실성(Integrity)을 가지고, (4) 모든 인간에게 존중(Respect)을 보일 것이며, (5) 사람들과 상호 지원적인 작업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행동하며 지속적으로 치료기술 및 역량을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적 헌신(Professional Commitment), (6) 클라이언트가 차별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의(Justice)를 가지고, (7) 치료와 연구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Minimizing Harm), (8) 형평성, 다양성 및 포용성(Equity, Diversit

y & Inclusion)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의 여덟 가지 윤리원칙을 제시하였다(WFMT, 2022). 사단법인 전국음악치료사협회에서는 총 3장 18조로 구성된 윤리강령을 제시한다. 세부적으로는 제1장은 전문가로서의 태도로, 제1조 음악치료사의 전문적 능력, 제2조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제2장은 음악치료와 관련된 윤리로서 제3조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 제4조 이중관계, 제5조 다른 전문가와의 관계, 제6조 사회와의 관계, 제7조 고용기관/운영자와의 관계, 제8조 비밀보장, 제9조 기록에 대한 내용으로, 제3장 제10조부터 15조까지는 연구와 관련된 윤리, 제4장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윤리문제 해결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전국음악치료사협회, 2011)(검색일: 2023.04.10). 위와 같은 윤리강령이 발생가능한 모든 윤리적 쟁점을 다루지는 못하지만 윤리적 딜레마에 봉착했을 때 먼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Debbie, 2016).

여러 음악치료 대표 단체들이 윤리원칙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음악치료사에게는 적절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Davis, Gfeller, & Thaut, 2002). 윤리는 치료효과에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올바른 윤리의식은 치료사와 내담자 모두를 보호해주지만 윤리적 개념이 없을 경우 모두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정현주, 2015). 그래서 치료사는 모두를 위해 윤리적 사고 기술과 자각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Debbie, 2016). 윤리적 사고(ethical thinking)는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는 기술이며, 지속적인 자각과 끊임없는 성찰, 개인적 책임을 요한다(Pope & Keith-Spiegel, 2008). 따라서 치료사는 반드시 윤리적 규범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명확히 숙지하고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직업적 핵심 가치에 대한 비판적인 자기반성이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슈퍼비전을 통해 윤리적 갈등에서의 문제해결력과 대처 전략을 배워야한다(Bruscia, 1998; Greenfield & Jensen, 2010; 정현주, 2015).

음악치료 윤리에 대한 문헌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부족하다(Debbie, 2016). Dileo(2000)의 ‘음악치료에서의 윤리적 사고(Ethical Thinking in Music Therapy)’가 음악치료 윤리에 집중한 유일한 책이며, 2021년 본서의 개정판이 출간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유통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음악치료 윤리와 관련하여 치료사가 인식하는 윤리적 부분 또는 윤리적 신념과 윤리적 대처능력에 대하여 소수의 연구에서 다뤘지만(김지연, 2011; 김지연, 2016; 김현경, 2013; 이희진, 2018; 민경선, 소혜진, 2019)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3) 음악치료 연구윤리

음악치료 연구윤리는 음악치료 연구에서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양식이다. 연구자이자 치료사로서 윤리의식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담자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하려는 치료사의 태도와 연구를 하려는 연구자로서의 자세를 동시에 갖기란 쉽지 않다(정현주, 2015). 주요 음악치료 학회 및 협회에서는 연구윤리에 관련한 윤리적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에서는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연구윤리규정’에서 총 10조의 구성으로 연구 참여자 보호 및 연구 부정행위, 부정행위 예방, 특수관계인, 연구윤리 심의규정,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비밀유지 등에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시행하고 있다(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2021)(검색일: 2023.04.10). 한국음악치료학회에서는 ‘한국음악치료학회지 윤리규정’에서 총 21조의 구성으로 학문적 자유와 사회적 책임, 기관의 승인,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보호 및 비밀유지, 참여 동의, 연구기록에 대한 동의, 참여 보상, 연구에서 속이기, 사후보고 등의 문제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시하고, 연구윤리 검증 원칙과, 검증 절차 및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시행하고 있

다(한국음악치료학회, 2016)(검색일: 2023.04.10). WFMT에서는 Code of Ethics의 Ethics in Research 문단에서 연구대상자 또는 인간 생물학적 자료를 포함하는 모든 음악 치료 연구는 연구의 법적 틀을 유지하고 관련된 기관윤리위원회 및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해 상충되는 부분은 공개되어야 하고, 지적재산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공동 작업자의 기여는 발표 또는 출판물에서 명확히 인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WFMT, 2022). AMTA에서는 음악치료 연구윤리에 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윤리강령(AMTA Code of Ethics)에서 연구에 관련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언급하고 있다(AMTA, 2019).

각 단체의 제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음악치료 연구윤리는 대체로 넓은 범주의 음악치료 윤리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별히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테면, 연구자가 사전 연구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연구대상자 수, 연구방법, 연구분석, 연구기간, 연구자 대상자에 대한 보상, 실험 중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연구대상자 모집문건, 연구 참여동의서, 연구 설명서 등의 그 내용과 방법이 적절한지가 중요하다. 음악치료 연구에서의 윤리적 이슈를 특정한 국내 선행연구는 아직 없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현대에는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많은 윤리적 이슈가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 대상 연구의 빠른 변화와 성장은 음악치료 연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음악치료 연구에서의 윤리적 확립은 연구의 안정성과 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임상전문성 및 이론의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고, IRB 심의 적용은 그 기준이자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음악치료 관련연구 IRB 심의 현황을 알아보고 음악치료 연구윤리의 현재에 대한 이해와 미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V. 결과

### 1. 국내 음악치료 전공 대학원에서 인간대상연구 학위논문의 IRB 심의 필수 여부

총 23개 국내 음악치료 전공 대학원 중 19개의 대학원에서 인간대상연구 학위논문의 IRB 심의 필수 여부 관련 응답을 받았다(응답률 83%). 석사학위 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은 18곳이었으며 이 중 IRB 심의가 필수인 곳은 8곳(44%)이다. 박사학위 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은 6곳이었으며 6곳 모두(100%)에서 IRB 심의가 필수 사항이었다(표 3 참조).

표 3. 음악치료 전공 대학원 인간대상연구 학위논문 IRB 심의 필수 여부

학교 학과 명칭	학위별 필수 여부	
	석사	박사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음악치료학전공	○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치료학과	○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음악치료전공	○	○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문화학과 음악치료전공	X	
동의대학교 산업문화대학원 음악치료학과	○	
명지대학교 통합치료대학원 음악치료학과	X	○

표 3. 계속

학교 학과 명칭	학위별 필수 여부	
	석사	박사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치료학과	X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음악치료트랙	O	
숙명여자대학교 원경대학원 음악치료학과	X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임상음악치료학과	X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음악치료전공		O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치료교육전공	X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치료학과	X	O
인제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전공	O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	O	O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음악치료전공	X	
한세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심리상담학과 음악심리치료전공	X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과 음악치료전공	X	O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융합학부 음악치료과학과	O	

주. 미확인 대학원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치료학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치료학과 음악치료전공, 수원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치료상담 전공,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음악치료교육학과

## 2. KCI 등재지에 발표된 전체 음악치료 IRB 심의 현황 및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한국음악치료학회지」와 「인간행동과 음악연구」의 IRB 심의 현황

2013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KCI 등재지에 발표된 전체 음악치료 관련 연구논문은 총 669편이고, 그 중 인간대상연구는 502편, IRB 심의를 거친 논문은 131편이며, 인간대상연구 IRB 심의비율은 26.1%로 나타났다.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의 IRB 심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음악치료학회지」(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KJMT)의 해당기간 내 전체 논문 수는 113편이며, 그 중 인간대상연구는 91편, IRB 심의를 거친 논문은 18편이고, 인간대상연구 IRB 심의비율은 19.8%이다. 둘째, 「인간행동과 음악연구」(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JMHB)의 해당기간 내 전체 논문 수는 93편이며, 그 중 인간대상연구는 69편, IRB 심의를 거친 논문은 15편이고, 인간대상연구 IRB 심의비율은 21.7%이다. 두 학술지를 합한 전체 논문 수는 206편이고, 인간대상연구는 160편, IRB 심의를 거친 논문은 33편이며, 두 학술지의 인간대상연구 IRB 심의비율은 20.6%로 확인되었다. 한편 의약학 분야 학술지의 음악치료 논문 수는 72편이며, 그 중 인간대상연구는 53편, IRB 심의를 거친 논문은 36편이고, 인간대상연구 IRB 심의비율은 67.9%이다.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와 의약학 분야 학술지를 제외한 학술지에서의 음악치료 논문 수는 391편이며, 그 중 인간대상연구는 289편, IRB 심의를 거친 논문은 62편이고, 인간대상연구 IRB 심의비율은 21.5%이다(표 4 참조).

표 4. 학술지별 IRB 심의 현황

학술지	음악치료 관련 연구	인간대상	IRB 인증	IRB 심의 비율 (%)
KCI 등재지 전체	669	502	131	26.1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KJMT	113	91	18	19.8
JMHB	93	69	15	21.7
합계	206	160	33	20.6
의약학 분야 학술지	72	53	36	67.9
이외 학술지	391	289	62	21.5

### 3. KCI 등재지에 발표된 IRB 심의를 거친 국내 음악치료 관련 연구의 영역별 현황

#### 1) 연도별 현황

IRB 심의 의무화가 시작된 2013년부터 2022년 사이에 KCI 등재지에 IRB 심의를 거친 음악치료 논문 숫자 추이는 아래와 같이 점차로 꾸준한 증가세이다. 2013년 첫째 7개였던 논문은 2022년이 22편으로 약 3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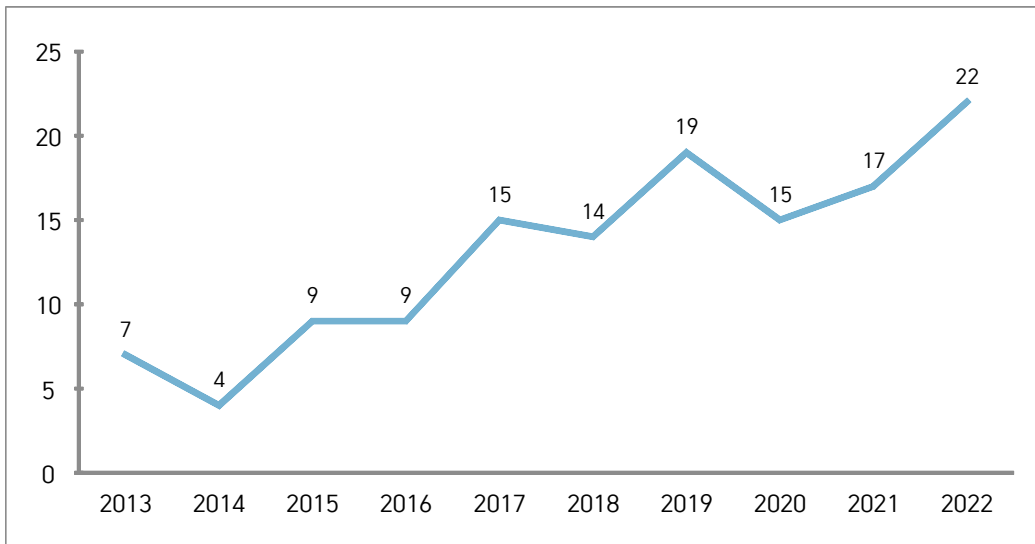


그림 1. KCI 등재지 IRB 인증 음악치료 논문 연도별 현황

## 2) 학술지 주제 분류 및 KCI 재단등재 구분별 논문 현황

학술지 주제 분류별 논문 수는 사회과학 주제의 학술지에 37편(28.2%)으로 가장 많았고, 예술·체육학과 의약학 주제의 학술지에 각 36편(27.5%), 복합학 17편(13%), 공학 2편(1.5%), 자연과학 2편(1.5%), 인문학 1편(0.8%) 등의 순으로 발표되었다. 학술지 KCI 재단등재 구분별 논문 수는 우수등재지에 발표된 논문이 3편(2.3%), 등재지에 발표된 논문이 117편(89.3%), 등재후보지에 발표된 논문이 11편(8.4%)이다(표 5 참조).

표 5. 학술지 주제 및 KCI 재단등재 구분별 논문 현황

학술지 주제	KCI 재단등재			
	우수등재	등재	등재후보	합계 (%)
사회과학	-	35	2	37(28.2)
예술·체육학	-	35	1	36(27.5)
의약학	3	31	2	36(27.5)
복합학	-	11	6	17(13.0)
공학	-	2	-	2(1.5)
자연과학	-	2	-	2(1.5)
인문학	-	1	-	1(0.8)
합계 (%)	3(2.3)	117(89.3)	11(8.4)	131(100)

### 3) IRB 심의기관별 논문 현황

연구를 심의한 IRB 심의기관별 논문 수는 대학이 81편(61.8%)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37편(28.2%), 공용이 4편(3.1%), 공용 IRB와 병원에서 병행하여 심의받은 논문이 1편(0.8%)이었으며, 심의기관이 논문에 기재되지 않은 논문이 8편(6.1%)이었다(표 6 참조).

표 6. IRB 심의기관별 논문 현황

IRB 심의기관	합계 (%)
대학	81(61.8)
병원	37(28.2)
공용	4(3.1)
병원과 공용 병행	1(0.8)
미상	8(6.1)
합계 (%)	131(100)

4) 주 저자 학위 및 전공별 논문 현황

주 저자 학위별 논문 수는 석사학위가 61편(46.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수(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28편(21.4%), 박사 17편(13%), 박사과정 7편(5.3%), 박사수료 6편(4.6%), 의사(M.D.)인 경우의 2편(1.5%), 학사 1편(0.8%) 순이었고, 학위가 확인되지 않는 논문이 9편(6.9%)이었다. 주 저자 전공별 논문 수는 음악치료가 81편(61.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약학 44편(33.6%), 예술치료와 음악학이 각 2편(1.5%), 사회과학과 응용예술이 각 1편(0.8%) 순이었다(표 7 참조).

표 7. 주 저자 학위 및 전공별 논문 현황

학위	전공						합계 (%)
	음악치료	의약학	예술치료	음악학	사회과학	응용예술	
학사	-	1	-	-	-	-	1(0.8)
석사	41	18	2	-	-	-	61(46.6)
박사과정	5	1	-	-	-	1	7(5.3)
박사수료	6	-	-	-	-	-	6(4.6)
박사	11	5	-	1	-	-	17(13)
교수	17	9	-	1	1	-	28(21.4)
의사	-	2	-	-	-	-	2(1.5)
미상	1	8	-	-	-	-	9(6.9)
합계 (%)	81(61.8)	44(33.6)	2(1.5)	2(1.5)	1(0.8)	1(0.8)	131(100)

5) 연구유형 및 연구방법별 논문 현황

논문의 연구유형별 논문 수는 실험연구가 81편(61.8%), 기술연구가 44편(33.6%), 개발연구가 6편(4.6%) 순이었고, 연구방법별 논문 수는 양적연구가 79편(60.3%), 질적연구가 39편(29.8), 병행연구가 13편(9.9%) 순이었다(표 8 참조).

표 8. 연구유형 및 연구방법별 논문 현황

연구유형	연구방법			합계 (%)
	양적	질적	병행	
실험	64	6	11	81(61.8)
기술	11	33	-	44(33.6)
개발	4	-	2	6(4.6)
합계 (%)	79(60.3)	39(29.8)	13(9.9)	131(100)

6) 연구대상 및 중재유형별 논문 현황

IRB 승인을 받은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대상별 논문 현황으로는 음악치료 전문인이 35편(26.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처치의 대상인 병원 환자 32편(24.4%), 장애 성인과 비장애 아동이 각 11편(8.4%), 장애 노인이 10편(7.6%), 비장애 성인이 9편(6.9%), 비장애 노인이 7편(5.3%), 장애 아동과 예술치료 전문인 및 의료 전문인이 각 4편(3.1%), 보호자 2편(1.5%), 장애 혼합과 혼합 대상의 논문이 각 1편(0.8%) 순이었다. 중재유형별 논문 수는 감상 중재가 30편(2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래 중재 20편(15.3%), 혼합 중재 14편(10.7%), 신경학적 음악치료 중재 9편(6.9%), 연주 중재 7편(5.3%), 온라인 중재 1편(0.8%) 순이었고, 음악중재가 없었던 논문이 50편(38.2%) 이었다(표 9 참조).

표 9. 연구대상 및 중재유형별 논문 현황

연구대상	중재유형						중재 없음	합계 (%)
	노래	악기 연주	감상	신경 학적	온라인	혼합		
아동	2	1	-	1	-	-	-	4(3.1)
장애	성인	3	2	-	4	-	1	11(8.4)
	노인	2	2	-	1	-	3	10(7.6)
	혼합	-	-	-	-	-	-	1(0.8)
아동	3	1	-	-	-	5	2	11(8.4)
비장애	성인	-	-	6	1	-	1	9(6.9)
	노인	2	1	1	-	1	1	7(5.3)
보호자	1	-	-	-	-	-	1	2(1.5)
의료처치환자	6	-	22	2	-	2	-	32(24.4)
음악치료 전문인	1	-	-	-	-	-	34	35(26.7)
예술치료 전문인	-	-	-	-	-	-	4	4(3.1)
의료 전문인	-	-	1	-	-	1	2	4(3.1)
혼합	-	-	-	-	-	-	1	1(0.8)
합계 (%)	20 (15.3)	7 (5.3)	30 (22.9)	9 (6.9)	1 (7.6)	14 (10.7)	50 (38.2)	131 (100)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국내 음악치료 관련 연구에서의 IRB 심의 현황을 파악하여 음악치료 연구윤리의 현재를 이해하고, 향후 음악치료 학계 및 연구자들이 IRB 심의 적용을 고려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국내 음악치료 전공 대학원의 인간대상연구 학위논문 IRB 심의 필수여부를 조사하였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KCI에 등재(후보)된 학술지에 게재된 음악치료 관련 논문 중 IRB 심의를 거친 131편의 논문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국내 음악치료 전공 대학원을 대상으로 인간대상연구 학위논문의 IRB 심의 필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23개 음악치료 대학원 중 조사에 참여한 18개 석사과정에서 IRB 심의가 필수인 곳은 8곳으로 44%였다. IRB 심의를 필수로 하지 않는 대학원이 10곳(56%)으로 더 많았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KCI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전체 음악치료 관련 인간대상연구 논문 IRB 심의 비율은 26.1%인데 반하여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인 「한국음악치료학회지」와 「인간행동과 음악연구」에서의 IRB 심의 비율이 20.6%로 전체 비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의약학 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음악치료 인간대상연구 논문 IRB 심의 비율인 67.9%보다 현저히 낮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직 국내 음악치료학계 전반에 IRB 심의 필요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IRB 심의를 거친 국내 음악치료 관련 연구의 연도별 현황을 보았을 때 「생명윤리법」에서 사회행동과학에까지 IRB 적용범위를 포함한 2013년부터 2022년 사이 논문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3년 첫째 7편이었던 논문은 2022년에는 22편으로 IRB 승인 음악치료

논문의 수는 9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으로 생명 윤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기관, 연구논문을 출간 하기 위한 전문 학술지에서 IRB 의무화 증가가 음악치료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전체 국내 학계의 생태학적 변화가 음악치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학술지 주제 분류별 현황을 보면 다양한 분야의 학술지에서 IRB 심의를 거친 음악치료 관련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음악치료학이 타 학문 분야와의 융·복합적 특성이 반영되어 다 학제적으로 팽창하였으며, 그에 따라 IRB 심의가 적용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음악치료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타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뿐만 아니라 음악치료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연구논문을 통해 음악치료를 접할 때 IRB 심의의 여부는 음악치료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음악치료의 보편적 성장세에서 음악치료 전문성의 확보를 위하여 IRB 적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IRB 승인을 받은 음악치료 연구 논문들에서 연구대상자는 음악치료 전문가들이 가장 많았다. IRB의 목적이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것이기에 실험 전 IRB는 환자, 어린아이, 장애인, 정신과 신체가 취약한 성인과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더 요구된다. 그런데 음악치료 131편의 논문 중 연구대상자가 취약계층인 비율은 53.7%, 비 취약계층은 47.3%이다. 비취약계층 중에서도 다른 전공과 비교하여 음악치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음악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많다는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연구대상자가 취약할수록 IRB 승인이 까다롭고 그렇지 않은 대상일수록 승인이 수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음악치료 전문가들 대상 연구가 IRB 승인이 수월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IRB 승인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취

약계층 대상의 연구에서 오히려 IRB 심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으며, 이는 취약대상 보호라는 IRB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연구대상이 취약할수록 연구자는 대상자 보호에 더욱 민감해야 하고 IRB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인식이 음악치료 연구자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IRB 승인이 많은 음악치료 연구 대상자는 병원에서 의료처치가 필요한 환자이다. 이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할 경우 IRB 승인을 의무화하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치료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관에서의 IRB 의무화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음악치료 학계 또는 학교 차원에서 IRB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주 저자 전공별 논문 현황을 보면 의료간호 분야 전공자의 비율(33.6%)이 음악치료 전공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의료계가 다른 영역에 비해 IRB 인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의료간호 분야에서 음악의 치료적 효과에 대한 관심과 임상 적용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물론 음악치료와의 협업 연구들도 있지만 그 수는 여전히 미미하다. 의료계와 전문 음악치료사와의 협업을 통해 의료에서 음악치료의 전문화,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음악치료의 주된 목적과 방법이 인간을 대상으로 음악을 치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음악치료는 모든 인간대상 연구에 의무화된 IRB 허가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음악치료 학계 전반에는 IRB 심의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 IRB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연구자의 연구방법이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러한 인증은 음악치료 연구의 안정성과 연구의 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임상의 전문성 및 이론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이를 위해 음악치료학계에서는 음악치료 전공생, 교육

자, 현업치료사 등의 관련자 모두에게 연구윤리와 IRB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음악치료 학술지 게재 및 음악치료 대학원에서 논문 발표 시 IRB 심의를 의무화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제한적 양적 자료에 집중해서 분석함으로써 음악치료 연구에서의 윤리에 대해 미시적인 접근을 할 수 없었다. 또한 KCI 등 재지에 게재된 한정적인 연구만을 다뤘기 때문에 전체 음악치료 연구에서의 IRB 심의 현황에 대해 정확히 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각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실질적인 IRB 심의 적용여부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다루지 못하여 현행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구체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국내 음악치료에서의 윤리적 부분에 대한 주제 및 음악치료 관련 연구자의 IRB에 대한 인식과 심의 적용 과정에 관련된 미시적·거시적 및 정량적·정성적인 다면적 연구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준호. (2006). 연구윤리 지침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철학사상**, 24.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3호.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8).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서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권오훈, 김병일, 김수영, 김영학, 김유선, 김재원, 김증임, 김진석, 류관동, 박성호, 서정욱, 심승혁, 유소영, 유영, 이은소, 조혜민, 최인홍, 한동수, 허선. (2019).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3판**. 서울: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KAMJE)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n.d.). www.irb.or.kr (검색일: 2023.04.10.).
- 김경숙, 이상은. (2016). 「한국음악치료학회지」 연구 동향: 성과와 과제.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8(2), 21-56.
- 김수정. (2013). 인격주의 생명윤리의 도덕적 단초. **인격주의 생명윤리**, 3(1), 27-52.
- 김승현, 윤홍근, 정이환. (2011). **사회과학: 형성·발전·현대이론**. 서울: 박영사.
- 김시형, 추정완, 우제창, 오정균, and 안영하. (2016). 사회행동과학연구의 특성에 따른 심의: 험프리스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생명윤리**, 17(1), 17-34.
- 김지연. (2011). 예비 음악치료사의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행동.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3.2. 57-74.
- 김지연. (2016). 음악치료사가 인식하는 직업윤리 구성요인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하영. (2018). 등재학술지 내 음악치료 연구 게재 동향.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5(2), 1-22.
- 김향인. (2015).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윤리연구**, 1(100), 131-149.
- 김현경. (2013). 전문 음악치료사의 윤리신념과 행동에 대한 변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철. (2010). 생명윤리의 이해. **대한내과학회지**, 79(부록 2호), 501-508.

- 민경선, 소혜진. (2019). 아동대상 음악치료사의 발달수준에 따른 윤리적 신념과 대처능력 차이 검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1(1), 95-111.
- 박수현. (2019). **IRB와 법의 이해**. 서울: 유원북스
- 박진빈. (2017). 터스키기 실험 사건의 역사적 기원-미국 공중보건의 딜레마-. **의사학**, 26(3), 545-576.
- 보건복지부[Website] (2023).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 결과, 54개 기관 추가 인증. retrieved from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6043&SEARCHKEY=TITLE&SEARCHVALUE=%EA%B8%B0%EA%B4%80%EC%83%9D%EB%AA%85](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6043&SEARCHKEY=TITLE&SEARCHVALUE=%EA%B8%B0%EA%B4%80%EC%83%9D%EB%AA%85) (검색일: 2023.04.10.).
- 손순영, 홍승호, 김용우. (2013). 2013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현황. **주간건강과 질병**, 7(19), 411-412.
- 이인재. (2010). 연구진실성과 연구윤리. **윤리교육연구**, 21(0), 269-290.
- 이희진. (2018). 음악치료사가 경험하는 윤리적 이슈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0(2), 127-152.
- 이현복, 이찬미. (2010). 연구윤리에 대한 국내외 규정과 제도비교. **윤리연구**, 1(7), 257-280.
- 임영모, 고유상. (2006). **과학분야의 연구윤리**.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전국음악치료사협회. (2011).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 윤리강령. retrieved from [http://nakmt.or.kr/bbs/board.php?bo\\_table=source&wr\\_id=3&page=](http://nakmt.or.kr/bbs/board.php?bo_table=source&wr_id=3&page=) (검색일: 2023.4.10.).
- 정현주. (201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개정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조귀훈. (2013). 국제적 수준의 생명윤리 확립 방안: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생명윤리포럼**, 2(1), 1-5.
- 조대훈. (2014). 다문화교육 연구자의 연구윤리-질적연구의 윤리적 딜레마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3(2), 35-50.
- 조성연. (2018). 사회행동과학연구에서의 생명윤리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 이해.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2), 1-17.
- 조현아. (2013).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연구 현황 분석.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0(2), 55-77.
- 주호노. (2017). 생명과학과 생명윤리 및 법. **생명, 윤리와 정책**, 1(1), 57-77.
- 차재권. (2009). 사회과학 연구윤리의 실천과 제도화.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2(2), 51-78.
-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Website] (2021).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연구윤리규정. retrieved from <http://www.komtea.or.kr/sub/subMain.jsp?menuseq=5050> (검색일: 2023.4.10.)
- 한국음악치료학회[Website] (2016). 논문투고안내. retrieved from <http://www.musictherapy.or.kr/html/sub0303.html> (검색일: 2023.4.10)
- Aigen, K. (1991). *The roots of music therapy: Towards an indigenous research paradigm. (Volumes I and II)*.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2019).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Code of Ethics. Retrieved April 10, 2023 from <https://www.musictherapy.org/about/ethics>
- Bioethics and Safety Act, 17783 Korean Law. (2019).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230&lsiSeq=224933#0000>
- Bruscia, K. E. (2003). **음악치료**. (최병철 역).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1998)
- Cha, S. H. (2012). 전부개정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변화: 인간대상연구를 중심으로 [Changes i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following the full revision: Focusing on human subject research].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1(2), 38-44.
- Cho, H. A. (2013).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연구 현황 분석 [Analysis of music therapy research in professional journals in Korea].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10(2), 55-77.
- Cho, S. Y. (2018). 사회행동과학연구에서의 생명윤리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 의 이해 [A review of bioethics and the IRB in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14(2), 1-17. <http://doi.org/10.14698/jkce.2018.14.02.001>
- Davis, W. B., Gfeller, K. E., & Thaut, M. H. (2002). **음악치료학 개론** (김수지, 고헤정, 권혜경 역). 서울: 권혜경음악치료센터(원서출판 1999).
- Debbie, B. (2016). 음악치료 윤리(이인용 역). In Barbara. L. W. (Eds.), **음악치료 핸드북**(pp.60-80).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서출판 2015).
- Debra, S. B., & Anthony, M. (2016). 음악치료 연구(김진아 역). In Barbara. L. W. (Eds.), **음악치료 핸드북**(pp.97-108).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서출판 2015).
- Dileo, C. (2000). *Ethical thinking in music therapy*. Cherry Hill, NJ: Jeffrey Books.
- Duerksen, G. I. (1968).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musical processes and the enjoyment of music*.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8.
- Else, B., & Wheeler, B. (2010). Music therapy practice: Relative perspectives in evidence-based reviews.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19(1), 29-50.
- Everitt, B. S., & Wessely, S. (2008). *Clinical trials in psychiatry*. John Wiley & Sons.
- Greenfield, B., & Jensen, G. M. (2010). Beyond a code of ethics: phenomenological ethics for everyday practice. *Physiotherapy Research International*, 15(2), 88-95.
- Hwang, E. Y., & Park, S. Y. (2012). 국내 음악치료 관련 학위논문 동향 분석 [Analysis of master's and doctoral thesis on music therapy in Korea].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14(1), 1-19.
- Israel, M. (2014). *Research ethics and integrity for social scientists: Beyond regulatory compliance*. Sage.

-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2022). 의학학술지 신규평가 및 통합 재평가 평가항목 [Evaluation items for new and integrated re-evaluation of medical journals]. Retrieved April 10, 2023 from <https://www.kamje.or.kr/association/evaluate>
- Kim, H. Y. (2018). 등재학술지 내 음악치료 연구 게재 동향 [Music therapy research trends in KCI journals].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15(2), 1-22. doi:10.21187/jmh.2018.15.2.001
- Kim, M. A., & Kang, K. S. (2021). 조현병 환자 대상 국내 음악치료 연구 동향 및 메타분석 [Trend and meta-analysis of domestic music therapy research for schizophrenia patients].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23(1), 1-35. <http://doi:10.21330/kjmt.2021.23.1.1>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n.d). 교육과정평가연구 간행규칙 제5장 연구윤리 [Curriculum evaluation research publication rules: chapter 5 research ethics]. Retrieved April 10, 2023 from <https://www.kice.re.kr/boardCnts/view.do?boardID=5000032&boardSeq=5083543&lev=0&m=030202&searchType=S&statusYN=W&page=1&s=kice>
-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2016). 연구윤리 규정: 제3장 제11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Research ethics regulations: Chapter 3 article 11 approval of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Retrieved April 10, 2023 from <https://counselors.or.kr>
-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8). 연구윤리 지침: 제7조 기관의 승인 [Research ethics guidelines: Article 7 approval of institutions]. Retrieved April 10, 2023 from <https://accesson.kr/kcpa/menu/1151/1153/>
- Korean Music Therapy Association. (2020). 논문투고안내 [Paper submission guidelines]. Retrieved April 10, 2023 from <http://www.musictherapy.or.kr/html/sub0303.html>
- Korean Music Therapy Education Association. (2021).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연구윤리규정 [Human behavior and music research research ethics code]. R

retrieved April 10, 2023 from <http://www.komtea.or.kr/sub/subMain.jsp?menuseq=5050>

Korean Society for Young Children Becoming Curriculum. (2010). 연구윤리규정 [Research ethics code]. Retrieved April 10, 2023 from [https://ksycbc.jams.or.kr/co/com/EgovMenu.kci?s\\_url=/sj/config/soceHomePgConf/guide/sjGuidNewView.kci?guidSeq=000000000002&s\\_MenuId=MENU-000000000011000&s\\_tabId=1&accnId=AC00000000022](https://ksycbc.jams.or.kr/co/com/EgovMenu.kci?s_url=/sj/config/soceHomePgConf/guide/sjGuidNewView.kci?guidSeq=000000000002&s_MenuId=MENU-000000000011000&s_tabId=1&accnId=AC00000000022)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Music Therapists. (n.d).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 협약학교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music therapists agreement schools]. Retrieved April 10, 2023 from <http://nakmt.or.kr/page/convention.php>

Park, S. H. (2019). **IRB와 법의 이해** [Understanding the IRB and the law]. Uwonbooks.

Pope, K. S., & Keith-Spiegel, P. (2008). A practical approach to boundaries in psychotherapy: Making decisions, bypassing blunders, and mending fenc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4(5), 638-652.

Sieber, J. E., & Tolich, M. B. (2012). *Planning ethically responsible research* (Vol. 31). Sage Publications.

Steneck, N. H. (2007). *Introduction to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The Korean Society for Educational Technology. (2020). 연구윤리규정 [Research ethics code]. Retrieved April 10, 2023 from [https://kset.or.kr/index.php?hCode=JOURNAL\\_02\\_12](https://kset.or.kr/index.php?hCode=JOURNAL_02_12)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2016). 학술지투고 각종규정: 윤리규정 [Academic journal submission: Rules of ethics]. Retrieved April 10, 2023 from <https://www.careeredu.net/%EA%B0%81%EC%A2%85%EA%B7%9C%EC%A0%95>

V.R. Potter. "Bioethics, the Science of Survival." 『Perspectives in Biology and Medicine,』 1970 Autumn. 14(1). pp.127-153.

World Federation of Music Therapy [Website] (2022, Sep 5). World Federation of Music Therapy Code of Ethics. retrieved April 10, 2023, from WFMT: <https://www.wfmt.info/wfmt-documents>

## 부 록

### KCI 등재지에 발표된 IRB 심의를 거친 음악치료 관련 인간대상연구 논문 131편 목록

- 곽선경, 박미경. (2019).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는 대상자에게 음악요법이 미치는 효과.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12), 471-483.
- 곽영신, 김동민. (2018). 남성음악치료사들이 경험하는직업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합의적 질적연구. **질적탐구**, 4(1), 59-89.
- 권명진, 강문희 & Kyongok Oh. (2013). Effect of the Group Music Therapy on Brain Wave, Behavior, and Cognitive Function among Patients with Chronic Schizophrenia. *Asian Nursing Research*, 7(4), 168-174.
- 김경숙, 정현주. (2020). 음악과 심상 내 자기-공감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0(1), 25-44.
- 김다울, 소혜진. (2022). 음악치료사의 타 분야 협력치료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4(2), 81-108.
- 김동민, 김영신. (2019). 예술치료사 발달평가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1(1), 21-44.
- 김동민. (2018). 예술치료 슈퍼바이저 발달과정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질적탐구**, 4(2), 275-302.
- 김세민, 여명선, 김수지. (2020). 척수손상환자의 보행기능 향상을 위한 음악 동조화 자극 적용 사례. **재활복지**, 24(4), 235-256.
- 김영신, 김동민. (2019). 예술치료사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1(2), 1-22.
- 김영신, 소라엘, 민경선, 임지연, 김동민. (2019).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음악치료사 전문성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1(2), 33-57.
- 김은연, 문일준, 조양선, 정원호, 홍성화. (2017). 인공와우이식 난청인의 말소리

- 운율변화에 따른 구어 이해와 음도 변별, 선율유평 확인 간 관련성.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4(2), 1-18.
- 김주은, 민경선, 김동민. (2021). 예술치료사의 공감의 전문성 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자기성찰의 매개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3(2), 27-52.
- 김주희, 김수지. (2018). 치료적 노래부르기를 통한 두경부암 환자의 말산출 기능 향상 사례. **재활복지**, 22(3), 189-208.
- 김지성, 성지은. (2022). MIT 기법을 적용한 구어작업기억 증제가 알츠하이머형 치매환자에게 미치는 효과.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7(2), 349-370.
- 김지애, 문지영. (2014). 소아암 치료 영역에서의 음악치료 인식도 조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6(2), 93-110.
- 김태연, 박신애, 이용석. (2017). 취주악기를 사용한 음악치료가 경수손상환자의 호흡, 구강운동 및 조음에 미치는 영향 -사례연구-. **재활복지**, 21(1), 233-252.
- 김태연, 박신애, 이용석, 이현아, 손동욱. (2021). 하모니카 음악치료가 경수손상환자의 호흡, 발성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강화폐활량계 그룹 비교. **재활복지**, 25(1), 91-111.
- 김혁건, 신옥주, 김민서, 임한밀, 정소. (2018). 하모니카를 활용한 호흡재활 훈련이 척수손상환자의 호흡기능에 미치는 영향.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5(2), 23-39.
- 김현영, 강연정. (2019). 기독교여성노인을 위한 노래자서전 음악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0(1), 105-129.
- 김현지. (2017). 전자 드럼 연주 시 노래부르기 유무에 따른 만성 뇌졸중 환자의 피로도 및 운동 수행력 비교.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4(2), 71-90.
- 김혜림, 배미현. (2022). 호스피스·완화의료 음악치료사가 경험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4(1), 27-53.
- 김혜은, 김동민. (2017). 목회자 자녀인 음악치료사의 자기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질적탐구**, 3(2), 181-219.

- 남용옥, 주은주, 이광희. (2017). 치석제거 시 음악중재가 공포 및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위생학회지**, 17(3), 395-404.
- 두은영, 서형은, 최수진, 장보경, 김미영. (2018). 일 종합병원 신규간호사의 예술 치료 프로그램 효과: 혼합연구방법. **간호행정학회지**, 24(2), 118-129.
- 문소영, 박지원. (2022). 음악치료사의 임상 현장에 관한 경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전과 과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3(2), 527-534.
- 문소영, 박지원, 양수아. (2019). AOS음악중재가 노년기 음성건강과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74(3), 65-92.
- 문소영, 박지원, 양수아. (2021). COVID-19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노인 음악중재 경험에 관한 질적 탐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7(3), 291-313.
- 문지영. (2016). 음악치료사의 성악심리치료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2(3), 185-201.
- 박소리, 한은영, 정현주. (2020). 파킨슨병 환자의 그룹가창활동 혜택 및 참여 경험. **재활심리연구**, 27(1), 135-152.
- 박영혜, 최성희. (2021). 말소리가 제한된 아동을 위한 말리듬을 이용한 난타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말소리와 음성과학**, 13(2), 67-76.
- 박예림, 최지엘, 김동민. (2021). 목회자 자녀인 음악치료사의 부모화 상처 치유과정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질적탐구**, 7(1), 399-431.
- 박정혜, 박광희. (2015). 음악요법이 노인백내장 수술환자의 활력징후, 불안, 코티졸 및 통증에 미치는 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3(8), 549-558.
- 박종연, 박수현. (2019). Effects of two music therapy methods on agitation and anxiety among patients weaning off mechanical ventilation: A pilot study. **기본간호학회지**, 26(2), 136-143.
- 박지선, 김영신. (2022). 음악치료 슈퍼바이저 역량모형 개발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4(1), 1-26.
- 박지선. (2020). 음악치료 슈퍼바이저 역량에 관한 질적연구.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 22(2), 177-197.
- 박찬양, 김진아. (2020). 음악치료 인턴들의 치료적 노래만들기 경험에 대한 주제

- 분석: 포커스 그룹을 중심으로.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7(1), 1-24.
- 박혜지. (2015). 외상성 뇌손상 청소년 대상리듬청각자극(RAS) 보행 훈련 시 선을 적용 사례.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2(2), 19-36.
- 박혜진, 성미혜. (2017). 음악요법이 조기진통 임부의 조기진통 스트레스 및 자궁수축에 미치는 영향.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3(2), 109-116.
- 배은숙, 김미정. (2016).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집단 음악요법의 심리적 증재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7(2), 153-162.
- 백유신, 김수지. (2021). 인생 회고를 통한 음악 자서전 프로그램이 초고령 노인의 우울감 개선에 미치는 효과. **노인복지연구**, 76(2), 9-33.
- 변혜민. (2021). 음악치료사가 경험하는 언택트 상황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문사회** 21, 12(6), 975-990.
- 서신애, 소혜진. (2019). Internship Experience of Nordoff-Robbins Music Therapy in Kore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Study. **질적탐구**, 5(3), 207-234.
- 서은실. (2017). The Use of Group Drumming With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in School Violence Prevention.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4(1), 85-108.
- 서은주, 윤혜상. (2015). 음악요법과 소음차단요법이 수술 후 통증, 진통제 투여량, 회복실 체류시간 및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비교.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17(4), 315-323.
- 소라엘, 김동민. (2018).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음악치료사 성장 경험에 대한 합의를 질적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4(1), 71-95.
- 소라엘, 김동민. (2020). 국내 1세대 음악치료사의 삶에 관한 생애사 연구: 작은 씨앗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0(2), 157-180.
- 소예은, 김동민. (2021).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진정성, 역전이 관리능력, 전문적 자기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검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3(1), 37-53.
- 소혜진. (2019). Understanding the Cross-Cultural Experience of US-trained Music Therapists from East Asia. **질적탐구**, 5(4), 151-180.

- 손연정, 박영숙, 김혜은, 최주연, 이경미, 이영희. (2015). 선호 음악요법이 복강경 자궁적출술 환자의 수술 후 통증, 불안 및 회복실 체류시간에 미치는 효과.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17(1), 28-36.
- 손유정, 민경선, 김동민. (2022). 슈퍼비전 작업동맹이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자기개방의 매개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8(1), 175-193.
- 송민선, 최찬현. (2014). 음악요법의 한의학적 활용을 위한 신뢰도 및 적용 가능성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8(6), 674-682.
- 송민정, 오덕원. (2022). 음악-기반 복합운동 프로그램이 유방절제술 환자의 림프부종, 악력, 통증, 보행 지구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신경근육재활학회지**, 12(4), 63-71.
- 송정희. (2018). 두개천골요법 및 자율신경 주파수를 이용한 음악 치료가 직장 여성들의 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화장품미용학회지**, 8(2), 181-194.
- 신진희, 소혜진. (2019). 음악치료사의 목소리 사용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3(2), 155-167.
- 안미나, 안혜영. (2013). 음악중재가 인공호흡기 유지 중환자의 통증에 미치는 효과.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15(4), 247-256.
- 양정임, 유광수. (2017). 선호음악요법이 자궁절제술 환자의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 **임상간호연구**, 23(1), 30-39.
- 양정임, 노민영, 양경희. (2015). 선호 음악요법이 전신마취 산부인과 수술 환자의 불안과 활력 징후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2), 1189-1199.
- 양진용, 정중현, 김동민. (2021). 음악치료사의 부모상담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1(1), 165-185.
- 여명선, 김수지. (2018). 연하장애환자의 후두기능 및 연하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료적 노래부르기 중심 음악중재사례. **재활복지**, 22(1), 169-194.
- 오명옥, 김영점, 백초희, 김주희, 박노미, 유미정, 송한솔. (2016). 음악중재가 비수축검사 임부의 불안과 태아심음 양상에 미치는 효과. *Journal of Korean Aca*

- demy of Nursing*, 46(3), 315-326.
- 오선화, 김영신. (2021). 음악치료사의 직업정체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3(2), 53-82.
- 오소영, 정현주. (2016). 초등학생의 리듬 재산출 능력과 인지기능 수준 간 상관관계.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3(1), 1-18.
- 오혜린, 양은주, 이현주, 박현경, 김창렬. (2013). 신생아에서 채혈 시 음악제공이 통증행동 반응에 미치는 효과. *Neonatal medicine*, 20(4), 470-475
- 유문숙, 박지원, 송미숙, 유미애, 박형란. (2013). 수동적 음악청취가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7(3), 490-499.
- 유예지, 소혜진. (2018). 자폐스펙트럼장애아동과의 치료에서 음악치료사의 관계형성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질적탐구**, 4(4), 137-165.
- 윤다솔, 순진이. (2016). 치료적 노래 만들기가 고등학교 특수학급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2(3), 303-324.
- 윤예은. (2018). 노래만들기 중재를 통한 인공와우이식청소년의 자기표현 능력 향상 사례.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5(2), 69-92.
- 윤은정, 박혜영. (2018). 집단음악활동이 시설거주 청소년의 분노조절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정담론**, 12(2), 111-134.
- 윤주리, 정현주. (2019).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를 통한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자원형성.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6(2), 1-25.
- 윤주리. (2014). 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음악치료 경험에 관한 연구: 자기결정성을 중심으로.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1(1), 63-82.
- 윤하정. (2022). 노래 만들기를 통한 완화의료 청소년의 자기수용 증진 사례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9(2), 55-80.
- 윤혜영, 서상범, 박지연. (2019). 긍정심리기반 음악치료가 도박중독자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6), 269-279.
- 이규희, 윤영미, 조미란, 김하영, 류황건. (2020). IPA를 활용한 음악치료사의 내담자 개인정보보호의 인식도와 실천도 분석. **보건의료산업학회지**, 14(1), 103

-110.

- 이나영, 김동민. (2017). 음악치료사들이 내담자로서 경험한 심리치료에 대한 합의적 질적연구. **질적탐구**, 3(2), 1-30.
- 이보민, 성윤정, 이정화, 한은영, 양영애. (2021). Effects of the Occupational Therapy Using the Music-Based Cognitive Stimulation Digital Device Program on Elderly's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Hand Function.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13(1), 1-11.
- 이상은, 김경숙. (2022). The Experience of Personal Therapy in the Analytical Music Therapy Training: A Focus Group Interview Study.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4(1), 107-129.
- 이상진, 이수연. (2022).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 노인의 노래를 활용한 심리적 지원 경험과 선호 노래 요소. **인문사회** 21, 13(1), 1069-1084.
- 이수연. (2022).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한 근거 기반 국악치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음악교육공학**, 50, 21-45.
- 이수연. (2022). 치료적 요소의 적용과 중학생의 흥미도를 반영한 국악 수업 활동 방안. **국악교육연구**, 16(1), 77-102.
- 이승열, 석현, 김상현, 박민근, 김지훈. (2018). Immediate Effects of Mental Singing While Walking on Gait Disturbance in Hemiplegic Stroke Patients: A Feasibility Study. *Annals of Rehabilitation Medicine*, 42(1), 1-7.
- 이영은, 김주성. (2017). 척추마취 전립선절제술환자의 음악요법효과에 대한 융합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1), 97-106.
- 이은혜, 김정범. (2015). 선호음악 감상이 향암화학요법을 받는 성인 유방암환자의 우울 및 수면에 미치는 효과. **의료커뮤니케이션**, 10(2), 115-126.
- 이은혜, 김영신. (2020). 음악치료사와 아동·청소년 보호자의 음악치료 종결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2(2), 107-139.
- 이인선, 박형숙. (2019). 음악중재가 간이식 환자의 환경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에 미치는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26(2), 75-85.
- 이재겸, 허명행. (2022). 아로마 에센셜 오일 흡입과 음악 청취가 건강한 성인의

- 스트레스 반응, 활력징후 및 진정 정도에 미치는 효과 비교. **성인간호학회지**, 34(1), 62-73.
- 이정민, 권영규, 이동주. (2022). 손 조작을 통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경도우울증 여성노인의 우울과 인지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지**, 43(3), 181-194.
- 이지은, 소혜진. (2022). 발달장애 형제를 둔 음악치료사의 성장경험에 관한 예술 기반 자문화기술지. **교육치료연구**, 14(3), 493-518.
- 장유진, 김동민. (2020).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2(2), 159-183.
- 장인숙, 오미영. (2017). 집단음악치료가 저소득층 고학년 초등학생의 심리 및 사회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7(1), 1-15.
- 정계선, 강윤희. (2016). 음악요법이 척추마취 하 수술 대상자의 불안, 진정상태 및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 **성인간호학회지**, 28(5), 525-535.
- 정계선, 김미형. (2015). 척추마취 하 수술 환자의 불안, 혈압, 심박수 및 혈당에 미치는 음악요법의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22(1), 25-34.
- 정영희, Lee Soyoung, 김우정, Lee Jee Hee, Kim Myung Jong and Han Hyun Jeong. (2020). Effect of Integrated Cognitive Intervention Therapy in Patients with Mild to Moderate Alzheimer's Disease. *Dementia and Neurocognitive Disorders*, 19(3), 86-95.
- 정유선, 나성원. (2019). 중환자 보호자의 불안 감소를 위한 단회기 노래중심 음악치료 적용 예비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6(1), 25-46.
- 정지연, 황은영. (2016). 호스피스 의료 환경에서 수행되는 음악치료 현황과 관련 의료인의 인식 조사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2(1), 271-291.
- 정현주, 이은지. (2019). 리듬꼴에 따른 건강 노인과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리듬 재산출 수행력 비교.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6(1), 73-88.
- 정현주, 조성래, 정은주, 김수지. (2013). Finger exercise with keyboard playing in adults with cerebral palsy: A preliminary study. *Journal of exercise rehabilitation*, 9(4), 420-425.
- 조현주, 문지영. (2016). 음악을 사용한 지시적 심상이 입원 정신질환자의 기분상

- 태 및 생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 20(1), 113-130.
- 주예은, 박진경. (2022). 중추신경계 손상 성인 대상 손 기능 향상을 위한 우쿨렐레 활용 치료적 악기연주(TIMP) 사례.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9(2), 81-103.
- 주지은, 배미현, 이소영. (2022). 팬데믹 상황에서의 장애 아동 보호자들이 경험하는 음악치료에 관한 다중 사례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38(4), 177-196.
- 주지은, 이진아, 김도현, 김민희, 오소희. (2019). 산모의 노래 중재가 고위험 신생아의 신체사정지수와 산모의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1(1), 45-69.
- 주지은, 정영희, 이소영. (2022). 경도인지장애, 치매환자의 음악치료 진단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연극예술치료연구**, 16, 65-87.
- 주향기, 소혜진. (2020). 음악치료사의 자기 돌봄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0(2), 43-64.
- 지현희, 조현숙. (2017). 음악요법이 중환자실 간호사의 주관적 스트레스 반응, 타액 코르티솔 농도 및 피로 수준에 미치는 효과.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7(2), 119-127.
- 채경숙. (2015).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을 위한 웃음요법과 음악요법이 우울과 자율신경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17(3), 245-252.
- 최소정, 배미현. (2021). “많이 다르네요!(挺不一样)” : 중국인 음악치료 전공생의 문화적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1(2), 49-67.
- 최수빈, 박상규. (2020). 안경 착용 여부에 따른 음악 통증완화효과의 탐색적 연구. **응용통계연구**, 33(6), 823-832.
- 최수빈, 이형환, 박상규. (2017). 동통실험을 통한 국악중재효과 평가. **보건정보통계학회지**, 42(2), 101-107.
- 최시원, 소혜진. (2018). 중간아이로서 음악치료사 발달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질적탐구**, 4(3), 201-241.
- 최윤영, 이미준, 김은실, 이지원, 권영인, 하유미. (2021).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

- 에게 제공한 음악요법이 우울과 재할 동기에 미치는 영향. **융합정보논문지**, 11(4), 220-229.
- 최정현, 이상빈, 안호정, 김지성, 구자풍, 박세연, 김년준. (2016). Effects of Music Therapy and Ball Exercise on Menstrual Discomforts among women in their 20s. **국제물리치료연구학회**, 7(2), 1056-1065.
- 최지엘, 소혜진. (2017). 음악치료 인턴쉽에서 경험하는 팀워크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3(2), 159-180.
- 최지은. (2019). 소아암 완치 청소년의 자기표현 경험을 위한 랩 만들기 사례.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6(2), 27-51.
- 최혜영, 이여진. (2013). 음악요법이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 환자의 불안, 우울 및 피로에 미치는 효과. **Asian Oncology Nursing**, 13(4), 175-183.
- 한은영, 박진세, 윤주리, 박지은, 박수현. (2019). Analysis of User Experiences in Convergence IT Music Therapy Program for Old Adults. **문화예술교연구**, 14(6), 85-122.
- 한은영, 윤지영, 정현주, 최경규. (2018). Individual Therapeutic Singing Program (ITSP) for Vocal Quality and Depression in Parkinson's Disease. *Journal Of Movement Disorders*, 11(3), 121-128.
- 홍금나, 김성찬, 최민주. (2020). 연주회 중심의 음악치료에 대한 시각장애 노인의 우울 개선 효과. *Journal of Naturopathy*, 9(2), 46-56.
- 홍정인, 김경숙. (2021).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인생 회고 기법을 활용한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환자와 주 돌봄 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1(1), 67-94.
- 황성하, 김동민. (2022). 노도프-로빈스 음악치료사의 인테이크(intake)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4(2), 29-54.
- 황성하. (2022). 음악치료 진단평가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8(3), 107-134.
- 황은영, 양은아. (2019). 음악치료 전문가로의 성장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5(1), 231-257.

- 황혜진, 송인령. (2022). 시설보호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증진을 위한 치료적 노래만들기 사례.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9(1), 43-67.
- Benet Neelesh, Krishna Rajalakshmi and Kumar Vijay. (2021). Enhancement of Processing Capabilities of Hippocampus Lobe: A P300 Based Event Related Potential Study. *Journal of Audiology & Otology*, 25(3), 119-123.
- Bong Su Hyun, Won Geun Hui and 최태영. (2021).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Therapy Based Music Therapy in Korean Adolescents with Smartphone and Internet Addiction. *PSYCHIATRY INVESTIGATION*, 18(2), 110-117.
- Ji Yun Yun, Ji Sun Kim, So-Yeon Shim, 조수진, 박은애 and 정현주. (2020). Effects of Music Intervention Techniques on Very-Low-Birth-Weight Infants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A Preliminary Study. *Neonatal medicine*, 27(4), 174-180.
- Kyungsun Kim and 정현철. (2020).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meaning of presence of elderly participants in an exercise-music program. *Physical Therapy Rehabilitation Science*, 9(4), 295-301.
- Michael J. Silverman and Edward Todd Schwartzberg. (2014). Effects of Mode and Rhythm on Working Memory as Measured by Sequential Digit Recall Performance.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6(1), 93-105.
- Michael J. Silverman. (2013). Effects of Educational Music Therapy on Knowledge of Social Supports in Acute Care Psychiatric Patients: A Randomized Three-Group Effectiveness Study.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5(2), 169-187.
- Michael J. Silverman. (2015). Effects of Educational Music Therapy on Knowledge of Triggers and Coping Skills, Motivation, and Treatment Eagerness in Patients on a Detoxification Unit: A Three-Group Cluster-Randomized Effectiveness Study.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7(2), 81-101.

- Shahrudin Fatin Amira, Dzulkarnain Ahmad Aidil Arafat, Hanafi Ayu Madih a, Jamal Fatin Nabilah, Basri Nadzirah Ahmad, Sidek Shahrul Na' im, Yusof Hazlina Md and Khalid Madihah. (2022). Music and Sound-Based Intervention in Autism Spectrum Disorder: A Scoping Review. *PSYCHIATRY INVESTIGATION*, 19(8), 626–636.
- Yeong Hye Park, Kyungjae Lee and Seong Hee Choi. (2021). Effects of Nanta Activities on the Adults Who Stutter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 17(3), 314–321.
- Youjing Dong, Yisha Wang and Yang Li. (2014). Perioperative Psychological and Music Interventions in Elderly Patients Undergoing Spinal Anesthesia: Effect on Anxiety, Heart Rate Variability, and Postoperative Pain. *Yonsei Medical Journal*, 55(4), 1101–1105.

## ABSTRACT

### Research Study on Deliberation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in Domestic Music Therapy Related Research

Kang, Tae Ook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status of IRB deliberation in domestic music therapy-related studies to understand the status of music therapy research ethics and to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to consider the application of IRB deliberation. The necessity of IRB review for human research dissertation in domestic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s was investigated, Starting in February 2013, when IRB review of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research became mandatory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Bioethics Act」, 131 papers that had undergone IRB deliberation among music therapy-related papers published in KCI-listed journals until December 2022 were categoriz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IRB deliberation essentiality was 44% for master's degrees and 100% for doctorate degrees among

domestic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s. The IRB review rate of music therapy in all KCI-registered journals was 26.1%, and of music therapy specialized journals,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and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was 20.6%, which was lower than the overall rate. By subject classification of academic journals, there were various categories such as 28.2% of social sciences, 27.5% of arts and sports studies, 27.5% of medicine and pharmacology, and 13% of complex sciences, etc. The major of the main author were 61.8% of music therapy and 33.6% of medical nursing. Universities accounted for the largest number of IRB review institutions with 61.8%. The most common type of research was experimental research at 61.8%, and of intervention was listening at 22.9%.

Based on the results, it was judged that the need for IRB deliberation was still low in the domestic music therapy academia, ecological changes in research ethics of the entire domestic academia were also occurring in music therapy, and that awareness of music therapy was expanding in various academic fields. Strict standards for IRB application must be established not only to improve the stability and quality of music therapy research, but also to develop clinical expertise and theory, and it is time to recognize that the weaker the research subject, the more sensitive the researcher should be to the protection of the subject and must undergo IRB deliberation. Therefore, it was suggested that music therapy students, educators, and field therapists should all be

conscious of research ethics and IRB in music therapy academia, and IRB deliberation should be mandatory when publishing music therapy journals and publishing papers in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s.